한국가구학회지(Journal of the Korea Furniture Society)
Vol. 22, No. 2 April, 2011, 101-111

전통 가구의 서랍장 비교
- 한국, 일본, 서구 중심으로 -

문 선 옥†

경상대학교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임산학

Differentiation of Chest of Drawers in Traditional Furniture
- Focusing on Korea, Japan, and the West -

Sun-Ok Moon

Environmental Forest Products,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NU, Jinju 660-701, Korea

Abstract: The intention is to explore the differentiation or evolution of the chest of drawers in traditional Korean, Western, and Japanese furniture in order to know how the drawers currently becoming popular in Korea were developed historically. The Korean furniture centered in *Jang, Nong, and Bandazi* used in the tradition generally, the Western furniture involved in drawers, and the Japanese furniture called *Tansu* in Japanese called the chest of drawers were focused on the study because the Western and Japanese drawers affected the development of the chest of drawers in Korean furniture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Japanese Ruling Era,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Korean furniture was not shown the chest of drawers but only small drawers that store small items located in the upper part of *Jang, Nong, and Bandazi* mostly used as wardrobe, while the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developed from Edo period (1607-1868) had showed a wide variety of chest of drawers like *Isho-dansu, Mizuya-dansu, Kusuri-dansu, Cho-dansu, Funa-dansu, Kaidan-dansu, Nagamochi-dansu, Kuruma-dansu,* and so on, for specialized storage. And in the traditional Western furniture were presented the chest like a large-box form, mule chest, chest of drawers, cabinet, commode, highboy, tallboy, wardrobe, secretary drawer and bureau with document drawer invented and evolved throughout the 15th-18th century. Therefore, the chest of drawers in contemporary Korean furniture is supposed to adopt the Japanese and Western drawer form and to ensure the continual production from the obvious utility of the design with decoration for our current everyday lives.

Keywords: *drawer, tansu, traditional furniture, Korea, Japan, Western World*

1. 서 론

국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서랍장의 역사를 알기 위하여 현존하는 유물 중심으로 볼 때 조선시대 말기의 한국전통가구, 산업화 이전의 서구의 전통가구, 에도 및 메이지시대의 일본의 전통가구를 통하여 서랍장 가구의 종류 및 발전을 비교 연

2010년 12월 21일 접수; 2011년 2월 5일 수정; 2011년 4월 14일 게재확정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KRF 2009)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문 선 옥 (somoon@gnu.ac.kr)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가구에 구성된 서랍을 살펴보면 한국은 주로 장, 농, 반닫이, 경대, 빗접, 약장 등에 있는 소형서랍, 일본은 단스로 불리는 다양한 용도의 서랍장, 서구는 커다란 상자 형태를 나눈 것 같은 상자 형 서랍장 등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형태의 한국의 전통가구는 일본 및 서구의 전통가구에서 보이는 커다란 서랍들로 구성된 서랍장으로 불리는 형태의 가구는 보이지 않으며, 서랍장은 19세기말 서구의 영향과 1910년부터 일제 강점기시대에 단스(箪笥)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나타나 지금까지 발전해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1922년에 창설된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의 가구는 종래의 한국전통가구와는 달리 일본가구의 형태가 도입되어 소위 단스로 불리웠던 서랍이 있는 수납가구가 주종을 이루었다(신, 1990).

서랍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서랍(舌盒, 穴盒)은 설합, 혈합, 또는 빼닫이로도 불리면서 "탁자의 바로아래 수평으로 끼우고 끌어내었다 밀어 넣게 하여 물건을 넣어두는 상자 비슷하게 만든 것", 일본의 "단스(箪笥)란 서랍(引き出し)"을 용도에 맞게 다양한 크기 및 개수를 적합하게 만든 서랍장을 의미하며, 서구는 "수납 가구에 또는 탁자 상판 아래에 들어있는 위가 개방된 작은 상자로 슬라이드방식으로 또는 홈을 따라 수평으로 당기면 뺄 수 있는 것"을 서랍(drawer)으로 하였으며, 서랍을 용도에 맞추어 그 크기 및 개수를 정하여 제작한 것은 서랍장(chest of drawers)으로 취급된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p. 621) (小泉和子, 1977, p. 161) (Boyce, 1988, p. 88).

따라서 연구 범위는 조선시대 말기의 장, 농, 반닫이 등에 관한 한국전통가구, 단스의 종류와 주로 옷을 보관한 이쇼단스에 관한 일본전통가구, 산업화 이전 서구의 서랍장의 발전에 관한 비교분석을 관련 국내·외 참고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할 것이다. 한국전통가구 및 서랍장의 도입부터, 일본전통가구, 서구의 전통가구의 서랍 및 서랍장의 발전의 역사를 용도 및 특성과 관련되어 다른 점을 비교할 것이다.

2. 한국전통가구 및 서랍장의 도입

다양한 물건을 저장하는 장, 농, 반닫이, 경대, 빗접, 약장 등 주로 소형 서랍을 포함하는 한국 전통목가구는 장 형태의 커다란 서랍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실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로 조선시대 말기의 소형 서랍이 내재된 한국전통가구와 19세기말부터 서구, 일본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랍장이 전통가구에 적용된 형태의 가구를 서랍의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2.1. 장(欌)

장은 층이 분리되지 않고 널과 기둥 또는 널과 널을 결속하고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도 앞널과 측널이 하나로 구성되며, 장은 궤에서 출발하여 첨차 높아지고 문의 개폐방법도 상하 여닫이에서 좌우 여닫이로 변화되어 있다. 용도와 보관물의 규모에 따라 이층장 또는 삼층장으로 확대된 것으로 여겨진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p. 9). 장의 종류는 옷장, 책장, 반닫이장, 머릿장, 찬장, 문갑장 등이 있다. Table 1에 나타난 장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한국전통 장은 천판 바로 아래 소형 서랍들이 배치되어 있다. 3층 옷장, 반닫이장, 2층 책장, 머릿장, 문갑장, 3층 및 4층 찬장 등의 장이 대부분 좌우여닫이문, 미닫이문, 상하 여닫이문 등의 개폐방식으로 인하여 옷, 책, 기물 등을 아래쪽부터 쌓는 방식으로 수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쪽의 공간이 남게 된다. 따라서 위쪽의 소형 서랍의 구성은 특히 장의 전면에는 기둥, 쇠목, 동자에 의해 분할된 머름칸, 쥐벽칸, 문판 등을 두어 장식적인 효과를 준 전체적인 면의 비례에 의한 자연스러운 공간의 분할의 활용을 극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장, 농의 면분할(面分割)은 단정하고 간결하며 대칭을 이룸으로써 한층 면의 배치가 분명해진다(이, 1986) (Table 1 참조).

2.2. 농(籠)

농은 장과 달리 각 층이 분리되는 형태로 단층의 농을 두 개 쌓은 것은 이층농, 세 개의 농을 쌓은 것을 삼층농으로 불리며 주로 옷가지를 보관하

Table 1. Traditional Korean Furniture (*Jang*)

Term	*Jang* Styles	Term	*Jang* Styles
3층 옷장 : *Jang* (Three-storied wardrobe)		3층 옷장 : *Jang* (Three-storied wardrobe)	
반닫이장 : *Bandazijang* (Half-opened wardrobe)		2층 책장 (Two-storied bookcase)	
머릿장 : *Morijang* (Head chest)		머릿장 : *Morijang* (Head chest)	
문갑장 (Chest)		4층 문갑장 (Four-storied Chest)	
3층 찬장 (Three-storied cupboard)		4층 찬장 (Four-storied cupboard)	

는 용도로 사용된 수납장이다(p. 186). 농의 종류는 몸통이 널과 널로 결속된 구조로 된 판형농과 몸통이 기둥과 널로 결속된 구조로 된 기둥형농의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국립민속박물관, 2004), 판형농은 대부분 2개의 농을 쌓아 놓은 판형 2층농으로, 기둥형농은 기둥형이층농 및 기둥형삼층농으로 보여진다. Table 2의 판형 2층농, 기둥형이층농 및 삼층농에서 보듯이, 판형농에서는 전면의 면 분할에 따라 주로 위쪽에 서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기둥형농은 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천판 아래 머름칸을 서랍으로 만들어 기능성을 추가하였으며 머름칸, 쥐벽칸, 문판 등에 무늬목으로 표면을 가공하기도 한다. 농의 맨 위쪽에 소형 서랍들이 배치되어 있다(Table 2 참조).

2.3. 반닫이(半닫이), 빗접, 경대, 약장

Table 2에서 보듯이 앞면을 반으로 나누어 면의 반을 위 아래로 여닫으므로 반닫이라 부르는데 앞닫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앞면의 문을 열면 대부분 소품 및 귀중품의 수납을 위하여 대부분 내부의 윗부분에 선반 구조물 또는 소형의 서랍이 내치되어있으며 경기도 반닫이의 경우 맨 아래쪽 마대에

Table 2. Traditional Korean Furniture (*Nong, Bandazi, Jawgyeong, Bitzeop, Yakjang*)

Term	Furniture Styles	Term	Furniture Styles
판형2층농 : *Nong* (Two-storied board wardrobe)		판형2층농 : *Nong* (Two-storied board wardrobe)	
기둥형삼층농 : *Nong* (Three-storied-supported wardrobe)		기둥형이층농 : *Nong* (Two-storied-supported wardrobe)	
경기도반닫이 *Bandazi* (Half-opened chest) 900 × 367 × 1,038 mm p. 311		전라도반닫이 *Bandazi* (Half-opened chest) 870 × 380 × 720 mm p. 387	
전라도반닫이 *Bandazi* (Half-opened chest) 1,098 × 427 × 878 mm p. 395		좌경 *Jawgyeong* (A dressing mirror) 20 × 27 × 13	
빗접 Bitzeop (A comb box)		약장 *Yakjang* (A medicine cabinet) 129.5 × 35.5 × 121.5	

서랍을 설치하여 용도 및 다양한 수납을 의도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소형 서랍들로 구성된 빗접은 화장과 머리를 단장할 때 사용하는 빗, 화장용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소형 상자형 가구이고, 조선시대 후기에 거울이 보급되면서 좌경으로 대치되었다. 따라서 좌경은 뚜껑을 열면 뚜껑안쪽에 부착된 거울을 비스듬히 세워서 사용하는 것으로 빗접과 마찬가지로 소형 서랍들을 구성한다(김, 2003). 조선시대가구에서 가장 많은 서랍을 구성하고 있는 가구는 약재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한약방에서 사용하던 약장은 주로 소형 서랍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단에는 주로 복합문으로 이루어져 희귀약이나 극약을 보관한 것으로 아주 특별한 형태의 한국전통가구이다(Table 2 참조).

2.4. 서랍장의 도입

한국전통가구의 형태에 서랍장이 도입된 시기는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체결로 인해 일본뿐만이 아니라 서방국가 즉,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등에 문물을 개방한 때로부터 나타난다. Table 3의 나전이층의걸이장은 도입 시기에 나타난 가구로 1880년부터 1910년까지를 개화기로써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수납가구를 사용했고, 일부 상류층과 왕실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서양가구양식으로

Table 3. Korean Furniture with drawers since the late 19th century

Term	Furniture Styles	Term	Furniture Styles
나전이층의걸이장 19세기말, 개인소장		19세기 서양 영향을 받은 가구	
일제시대 중기 장안동고미술상가		일제시대말기 장안동고미술상가	
일제시대말기 황학동 고가구상		장 1960	

부터 영향 받은 가구들이 나타났다(강, 2002) (신, 1990). 서랍장이 대중화되기 이전의 일제시대 초기는 전통가구의 거울이 있는 장이나 농의 하단에 반닫이를 구성하는 형태의 가구들도 있었다. 일본 문화와 고유의 나전칠기 하나로 융합된 작품을 주류로 보는 1922년에 시작한 선전(조선미술전람회)의 가구는 단스(箪笥)로 불리는 형태의 일본가구 도입되어 주류를 보였으며, 출품된 가구를 분류하면 전체 19점 중 전통형이 1점, 일본형이 12점, 중국형이 1점, 그리고 서양형이 5점으로 서양형태의 가구가 일본형 다음이었다(신,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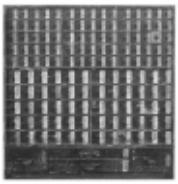
3. 일본의 서랍장

고대 중세 일본에서는 가구가 상류지배계층에 의해서만 발달하다가 18세기 에도(江戶) 말기부터 민간에서 단스(箪笥)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황영혜, 2005, p. 2). 단스(箪笥)는 일본 에도시대(1603~1867)에 면방직 공업과 상업의 발달, 목공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하여 가장 폭넓게 활용된 가구로 중층의 서랍구조로 되어있으며 수납물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세분화된다(강혜영, 2002, p. 36). 따라서 다양한 단스의 용도 및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3.1. 단스(箪笥)

다양한 서랍을 가진 일본의 대표적 수납가구로 단스(tansu)는 일반적인 서구에서 전통에서부터 보이는 목재 캐비닛(cabinet)을 지칭하는 용어를 붙이기도 한다(Boyce, 1988, p. 291). 전통적인 일본 가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부유한 상인계층이 생겨난 에도시기(1603~1867)의 초기가 되어서야 전문화된 다양한 단스들이 개발되었으나, 실제로 단스가 보급되어 활발히 쓰여지는 것은 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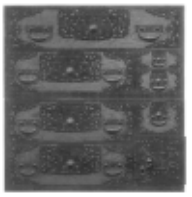
Table 4. Traditional Japanese Tansu Furniture

Term	Tansu Styles	Term	Tansu Styles
帳場箪笥(쵸바단스) 연대 : 明治(메이지)시대 1872~1876 소재 : 전나무 890 × 390 × 950		船箪笥(후나단스) 연대 : 江戸(에도)시대 1603~1867 소재 : 느티나무, 내부 = 오동나무 36 × 44.8 × 41.5 cm	
車箪笥(쿠루마단스) 연대 : 江戸(에도)시대 소재 : 노송나무 116.3 × 69.5 × 106 cm		船箪笥(후나단스/옷궤) 메이지(明治: 1863~1912) 이후 느티나무, 오동나무 87.3 × 44.2 × 89.2	
水屋箪笥(미즈야단스) 연대 : 大正(타이쇼 1912~1926)시대 소재 : 느티나무 122 × 45 × 170 cm		階段箪笥(카이단단스) 연대 : 江戸(에도)~明治(메이지) 초기 소재 : 느티나무, 소나무, 삼나무 198 × 79 × 214.6 cm	
薬箪笥(쿠스리단스) 연대 : 에도시대~메이지 초기 소재 : 오동나무(서랍), 노송나무 94 × 18.5 × 95 cm		刀箪笥(카타나단스) 연대 : 江戸(에도)시대 소재 : 오동나무 110 × 31 × 43 cm	
手許(手元)箪笥(테모토단스) 연대 : 메이지시대 1872~76 소재 : 느티나무, 삼나무 57 × 28 × 58 cm		蒲団箪笥 (후톤단스) 연대 : 明治(메이지)시대 소재 : 느티나무, 노송나무, 삼목 189 × 91.5 × 172 cm	

로쿠(元禄 : 1688~1704)중기 경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궤, 상자, 고리짝 등이 수납을 위하여 만들어졌다(小泉和子, 1977, p. 170). 그 종류는 매우 다양했고 현존하는 단스들이 주로 만들어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가 단스의 전성기로 알려져 있다(Boyce, 1988, p. 291).

Table 4에서 보는 것처럼 단스의 종류는 쵸바단스는 계산대, 후나단스는 배안에서 사용, 이쇼단스는 옷장, 쿠루마단스는 이쇼단스나 쵸바단스 아래에 바퀴가 달린 것, 미즈야단스는 식기나 음식물, 카이단단스는 계단의 측면을 서랍으로 이용, 쿠스리단스는 약재, 카타나단스는 검(刀), 테모토단스는 장신구, 후톤단스는 침구류를 위한 용도의 단스 이외에 요단스는 잡화, 차노마단스는 다기(茶氣), 직공용으로써 재료, 도구, 제품단스 등이 있고, 행상인이 가지고 다니는 상품단스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단스가 만들어졌다. 이 중에서 이쇼단스는 의복을 보관하는 서랍장으

Table 5. Traditional Japanes Isho-Dansu Furniture (小泉和子. 1977, pp. 5-11)

Term	Isho-dansu styles	Term	Isho-dansu styles
1. 이쇼단스(衣裳箪笥) 메이지 : 1868~1912 오동나무 63.5 × 36.5 × 69.5 cm		5. 이쇼단스(衣裳箪笥) 오동나무 18세기 후반 95 × 42 × 103 cm	
2. 이쇼단스(衣裳箪笥) 에도시대 노송나무, 치자나무 84.5 × 40 × 88.5 cm		6. 이쇼단스(衣裳箪笥) 메이지 24년(1891) or 25년(1892) 추정 88 × 45 × 121.5 cm	
3. 이쇼단스(衣裳箪笥) 느티나무, 삼목 115 × 38 × 101.3 cm		7. 이쇼단스(衣裳箪笥) 느티나무 112.5 × 44 × 111 cm	
4. 이쇼단스(衣裳箪笥) 메이지(明治) 40년, 1907 느티나무 91 × 44.5 × 121.5 cm		衣裳箪笥(이쇼단스) 연대 : 江戸(에도)시대 소재 : 전면 오동나무/ 측면, 내부재 전나무, 삼목 97 × 38 × 114 cm	

로 가장 다양한 형태가 보이며, 19세기 말 한국전통가구인 나전 의걸이장의 하단부에 서랍장을 적용하였으며 그 이후 국내 서랍장 발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강혜영, 2002, p. 31).

3.2. 이쇼단스(衣裳箪笥: Isho-Dansu)

이쇼(衣裳)란 의상을 말하며 주로 의류를 넣어 보관하는 서랍장 형태의 단스로,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된 서랍장으로 혼례용으로도 만들어졌다. Table 5의 이쇼단스는 커다란 좌우 여닫이(한가운데서 좌우로 엶) 문의 전면에 띠 모양 쇠장식을 좌우로 박아 넣은 전형적인 에도시대 옷장이다. Table 5의 8개의 다양한 형태의 이쇼단스처럼 일반적으로 4개의 넓은 서랍이 있으며 맨 아래 서랍은 위에 있는 3개의 서랍들보다 더 좁고 맨 아래 서랍의 오른쪽에 작은 문이 달려 있다. 이 작은 문을 열면 두 개의 작은 서랍이 추가적으로 보인다. 이 서랍들에는 반원형 손잡이와 가문이 그려진 방패가 있다. 테두리에는 모서리에 덧댄 평판이 있었는데 모두 금속으로 된 것이다. 이쇼단스는 보통 두 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를 다른 것의 위에 올려두는 식이다. 이 경우에도 서랍의 표준적인 배열이 지켜지고 있었다. 즉, 위에 놓인 수납함에 서랍이 두 개 있고 밑에 놓인 수납함에 서랍이 두 개 있으며 문 뒤에 추가적으로 서랍이 두 개 더 있다(Boyce, 1988, 150).

4. 서구의 서랍장

4.1. 상자(Chest) 및 서랍(Drawer)

체스트로부터 발전된 서랍을 통하여 서랍장으로 발전한 것으로, 수납을 위한 뚜껑이 있는 위로 열고 닫는 고대시대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가구에서 처음 나타난 단순한 가구형태로 큰 상자를 체스트(chest)라고 Boyce (1988)는 정의한다(p. 56) (Table 6 참조). 이 큰 상자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18세기에도 인기 있는 가구로 남아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p. 56). 유럽형 가구로 유럽에서 15세기경에 독립적으로 재탄생되었으며, 내용물이 뒤섞이지 않고 하나를 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수납함에서 칸막이로 사용된 작은 상자에서 발전된 것이 서랍(drawer)으로, 고대 이집트 가구에서 작은 서랍이 소형 탁자와 수납 체스트(chest)에 사용되어 보석, 화장품, 게임 물품 등을 넣어 보관하였다. 서랍을 옆으로 나란히 배치한 뮬 체스트(mule chest)로부터 서랍을 용도에 따라 여러 개 수직으로 놓은 커다란 상자형태의 서랍장(chest of drawers)이 발전되었다(p. 88) (Table 6 참조).

그 후 이러한 서랍장 형태는 정교한 장식의 아름다운 서랍을 많이 넣어 만든 케비닛(cabinet), 코모드(commode)같은 서랍장, 옷장(wardrobe), 책장 서랍(secretary drawer)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수납을 필요로 하는 어떤 가구에든 적용되어 서랍을 넣어 만들었는데 이러한 가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Table 6 참조).

4.2. 서랍장(Chest of Drawers)

15세기 중세가구의 가장 중요한 상자가구인 체스트에서 발전되었으며, 체스트 안에 물건들이 섞여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자들을 넣어 칸막이의 역할로부터 발전하여 옆쪽 바닥에 있는 상자들부터 물건을 위로보다 옆으로 꺼내면 더 편리 하겠다는 생각이 서랍으로 발전되었으며, 서랍 밑에 선반과 홈을 갖추게 되었다. 서랍을 나란히 배열한 뮬 체스트(mule chest)가 나오고, 16세기를 지나면서 유용한 형태의 서랍장으로 진화하고, 17세기에 영국에서 탁자위의 서랍장(chest-on-stand)과 서랍장 위의 서랍장(chest on chest)이 나타나면서 이 서랍장들은 사용하기에 편리한 높이였다. 탁자 위의 서랍장 형태는 미국의 다리가 달린 높은 하이보이(highboy)로 발전되었고 서랍장 위의 서랍장은 영국의 다리가 달린 높은 톨보이(tallboy)로 알려지게 되었다(Table 6 참조).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가구가 앞으로 튀어나온 서랍장인 코모드(commode), 높은 서랍장인 쉬포니에르(chiffonniere)로 발전되었다(Boyce, 1988, p. 56).

4.3. 코모드(Commode)

18세기 로코코가구에서 두드러졌으며 17세기 말에 개발된 코모드는 다리가 달린 프랑스 서랍장으로 특히 정교하게 장식된 모든 프랑스 서랍장 가리킨다고 영어로 사용되었다. 이런 코모드로부터 변형되어 코모드-톰보(commode-tombeau), 코모드(commode a la regence), 코모드-크레상(commode Cressent), 코모드 아 반톡스(commode à vantaux), 코모드 앙 콘솔(commode en console), 데미룬 코모드(demilune commode) 등 다양하게 발전된 형태를 보인다(p. 67) (Table 6 참조).

코모드-톰보는 17세기 루이 14세 양식의 프랑스 서랍장으로 이층의 서랍으로 만들어진 만곡의 부풀어 오른 봄베(bombe) 형태로 구성되고, 각 코너에 각각 두개의 다리가 있어 여덟 개의 다리가 구성되어 있다(p. 68). 코모드-크레상은 루이 15세 양식에 가장 뛰어난 코모드로 주요한 개발자 찰스 크레상(Charles Cressent)의 이름을 붙인 18세기 프랑스 서랍장으로 꾸불꾸불한 정면과 장식적 모양의 처진 에이프런(apron)으로 구성된 서랍장을 긴 까브리오(cabriole) 다리들이 받치고 있다(p. 67). 까브리오 다리는 18세기에 우세한 다리 형태로 조각되고 밖과 안의 이중으로 굽어진 점점 가늘어지는 다리형태이다(p. 171).

코모드 아 반톡스는 두개의 여닫이문 뒤에 있는 서랍들로 구성된 18세기말 프랑스 루이 16세 양식의 서랍장으로 18세기 중반에 처음 나타났다(p. 68). 코모드 앙 콘솔은 한 개의 서랍과 긴 다리로

Table 6. Traditional Western Furniture

Term	Furniture Styles	Term	Furniture Styles
Chest (15th century) 궤		Chest (1560~1600) 궤	
Louis XV, Commode 19세기		Commode (c. 1775) 서랍장	
Commode (c. 1730) 서랍장		Commode, (c. 1755)	
Commode (c. 1730)		Commode (18세기 후반)	
Queen Anne Chest of drawers or tallboy, 18세기		Highboy : Chest on stand, 18세기, 장	
Cabinet (1642~1732) 장 Luice-Smith		Cabinet (c. 17th century) 장 Luice-Smith	
Wardrobe (Louis XIV Armoire) 옷장		Secretary 장	

구성된 18세기 프랑스 가구형태이다. 데미룬 코모드는 앞면이 원의 호(弧)와 같은 곡선 모양인 18세기 중반 이후 루이 16세기 양식의 프랑스 서랍장으로 중앙에 볼록한 서랍들과 양쪽 측면에 선반이 있는 작고 볼록한 칸막이 공간이 있으며, 앞면에 문이 있기도 한다(Boyce, 1988, p. 82) (Table 6 참조).

4.4. 캐비닛(Cabinet), 옷장(Wardrobe), 세크러터리(Secretary)

커다란 상자(chest)로부터 서랍을 거쳐 발전된 서랍장과 함께 제작된 다양한 용도의 높은 수납장인 케비닛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가구 양식의 자랑이며, 또한 서랍 손잡이는 장식의 미(美)를 나타내는 요소이기도 했다(p. 88). 캐비닛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유래되어 17~8세기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디자인은 보통 고전 건축을 모방하였고, 작은 물품을 저장하고 진열하기 위하여 작은 서랍들이 정교하게 공들여 만들어진 고급가구이다(p. 44) (Table 6 참조). 옷장(wardrobe)은 서랍장이 하단 부분에 첨가된 높은 찬장(cupboard)형태로 옷을 보관하도록 디자인된 16~7세기 유럽에서 개발된 수납가구이다. "wardrobe"라는 용어는 중세시대 가구보다는 옷과 아마포를 보관하는 방을 나타내었고 18세기가 되어서야 지금의 옷장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p. 314). Table 6의 직선적 건축적 특성을 나타낸 아모와르(armoire)는 프랑스 대형 옷장(wardrobe) 형태인 찬장은 앞면에 문이 있고 선반과 서랍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17세기의 접는 책상으로부터 18세기에 인기 절정을 보이는 세크리터리는 서랍장 위에 경사진 상판을 열면 책상이 되는 영국과 미국가구 형태의 책장이다(p. 269). 보다 전문적인 용도로 18세기 서랍 달린 사무용 책상(bureau) 또는 세크리터리는 서류를 보관하기위하여 긴 구멍에 맞는 작은 수직의 상자 형태의 문서서랍(document drawer)이 구성되어 있었다(Boyce, 1988, p. 87) (Table 6 참조).

5. 한국, 일본, 서구의 전통가구의 서랍장의 비교

이상의 전통가구에 나타난 한국, 일본, 서구의 서랍장으로부터 구체적 시기, 가구의 종류 및 형태, 서랍 또는 서랍장의 크기, 및 용도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1. 서랍 또는 서랍장의 종류 및 형태

한국은 주로 현존하는 전통가구에서 조선시대 말기의 가구로써 주로 소형 서랍형태로, 장, 농, 반닫이 등에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구성된 몇 개의 소형 서랍, 빗접 및 경대의 상자형 소형 서랍장, 그리고 주로 소형 서랍으로 이루어진 약장 형태로 나타난다. 일본의 전통가구에서 서랍장이 발달한 에도(1615~1867)시대부터 메이지(1868~1912)시대까지의 가구로써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서랍장 형태이다. 그 종류로는 쵸바단스는 계산대, 후나단스는 배안에서 사용, 이쇼단스는 옷장, 쿠루마단스는 이쇼단스나 쵸바단스 아래에 바퀴가 달린 것, 미즈야단스는 식기나 음식물, 카이단단스는 계단의 측면을 서랍으로 이용, 쿠스리단스는 약재, 카타나단스는 검(刀), 테모토단스는 장신구, 후톤단스는 침구류, 요단스는 잡화, 차노마단스는 다기(茶氣), 제품단스는 직공용으로써 재료 및 도구 등, 상품단스는 행상인이 가지고 다니는 단스들이 있다. 그리고 서구의 서랍장 형태 및 종류는 주로 산업혁명 이전의 고대시대부터 신고전주의 시대가구로써 커다란 상자형태의 서랍장부터 서랍장을 두 개를 쌓아 놓은 대형 서랍장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커다란 상자부터 시작하여 서랍을 고안하여 서랍을 나란히 배열한 뮬 체스트(mule chest)에서 발전한 수직으로 쌓는 서랍장(chest of drawers), 톨보이(tallboy: chest on chest), 하이보이(highboy: chest on stand), 케비닛(cabinet), 코모드(commode), 옷장(wardrobe), 책장 서랍(secretary drawer) 등의 다양한 종류를 보인다(Table 1~6 참조).

5.2. 서랍 또는 서랍장의 크기 및 용도

한국전통가구에 나타난 서랍은 주로 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도는 장, 농, 반닫이 등은 배치된 공간에 맞는 소품 및 귀중품 보관, 빗접과 경대는 빗 등의 화장용품 보관, 약장은 다양한 한약재보관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의 전통가구에 나타난 서랍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장신구를 보관하는 소형서랍장으로부터 침구류 및 옷을 보관하는 대형 서랍장까지 용도에 따라 대, 중, 소의 다양한 크기를 보인다. 용도는 옷, 침구류, 계산대, 식기나 음식물, 약재, 검(刀), 장신구, 잡화, 다기(茶氣), 재료 및 도구 등, 배안에서 사용, 행상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하였다. 서구의 전통가구에 나타난 서랍은 커다란 상자의 서랍장부터 서랍장을 두 개를 쌓아 놓은 대형 서랍장으로 대, 중, 소의 다양한 크기를 보인다. 서랍장의 용도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대・중・소의 서랍장을 상단 또는 하단에 부분에 첨가하였으므로 거의 모든 용도로 예측되는데, 옷, 다양한 소품 및 기물, 책 등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였다(Table 1 ~6 참조).

6. 결 론

오늘날 국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서랍장의 역사적 발전을 알기 위하여 장, 농, 반닫이 등을 중심으로 한국전통가구에 구성된 서랍(舌盒, 穴盒), 설합, 혈합, 또는 빼닫이, 일본전통가구의 서랍장인 단스(簞笥), 서구전통가구의 큰 상자(chest)에서부터 진화된 서랍장(chest of drawers)에 대한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한국의 전통가구에서 일본의 단스나 서구의 서랍장의 형태는 안보이나 다양한 소형 서랍이 구성된 가구들은 장, 농, 반닫이 이외에 약장, 경대, 빗접고비 등에서 정교한 솜씨를 보이며 아름다운 형태가 발전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서랍장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구 및 일본의 영향을 받아 당시 유행한 나전칠기 장 등의 하단부에 여러 개의 단으로 배치되어 옷장, 의걸이장, 이불장 등에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근대시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나타난다. 현재 장인가구, 보르네오, 리바트 등의 국내 유명한 가구회사들은 대부분 1단부터 6단까지의 다양한 서랍장(조와 문, 2010)이 나타나며 책상, 책장, 장식장 등에 서랍을 용도 및 크기에 따라 배치하여 전문적 용도에 맞는 실용성과 함께 장식성을 겸비하여 현대 실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품목이다.

참 고 문 헌

강혜영. 2002. 한국 근대 가구에 관한 연구 - 1880~1960년 의류수납가구를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31, 32.

국립민속박물관. 2004. 목가구. 서울: 대원사, 9, 10, 186, 274, 299, 301, 311, 315, 387, 395, 621.

김삼대자. 2003. 전통목가구(빛깔있는 책들). 서울: 대원사, 14, 61.

이종석. 1986. 한국의 목공예. 서울: 설화당, 93.

신영식. 1990. 근대이후에 한국 가구의 양식 변천에 관한 연구(가정용 목제 수납가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19, 21, 28, 30, 36.

조숙경, 문선옥. 2010. 현대 가정용 가구의 종류별 명칭 연구. 21(5): 434-436.

황영혜. 2005. 한・중・일 수납가구 장석의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40.

Blakemore, G. 1997. History of Interior Design and Furniture. New York: Willy. 172, 252, 253, 252, 257, 261, 287, 289, 319.

Boyce, C. 1988. Dictionary of Furnitur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Inc. 44, 56, 67, 68, 82, 87, 88, 139, 171, 269, 291.

Lucie-Smith, E. 1993. Furniture: a concise history. New York: Thames and Hudson Inc. 76, 79.

小泉和子. 1977. 和家具. 일본 동경. 小館, 5-11, 161, 171.

http://www.fuchu.or.jp/~kagu/museum/index. htm.

http://blog.goo.ne.jp/equrl118/e/ae74817c4020708fbd6996ec15b2b696.